

회 고 사

심 정 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학술원회원

高分子科學과 技術에 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료의 교환과 새로운 학문의 개척 및 학·연·산 협동체제를 굳혀 이 나라 고분자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76년 10월 한국고분자학회가 발족된 것이 올해로서 벌써 성년의 나이에 들어선 20회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1977년 5월 제1회 춘계 정기총회 및 연구 발표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회원수는 180여명 연간 예산액 13백만원, 발표 논문수는 22편 정도로서 모든 시작이 그리하듯이 학회의 규모는 매우 영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후 눈부신 發展을 거듭하여 1996년 춘계 定總 및 연구 발표회 때의 논문 발표수는 271편, 약 3천명의 회원에다, 연예산 약 2억 5천만원으로, 창립 당시의 약 20배로 불어났다. 국내의 정통있는 어느 학회와 비교하여도 그 규모나 활동이 조금도 손색이 없는 큰 학회로 성장·발전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선진 외국의 큰 학회와도 경쟁을 해 나갈 수 있는 학회가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늘을 있게 한 창립 초부터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역대 회장단, 전무이사를 비롯한 임원은 물론 많은 회원들의 협조와 어려울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본 학회의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돌이켜 보건대 이 나라의 고분자 학문은 60년대에 蔚山과 麗川에 2개의 석유화학공업단지의 건설과 함께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석유화학공업의 발전과 보다 다양해진 고분자공업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하여 창립 당시에 비해 20년이 지난 오늘날엔 「폴리머」지와 Korea Polymer Journal에 발표되고 있는 논문의 수나 연구 대상분야의 폭 및 깊이에 있어서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본 학회의 초대 회장에는 故 성좌경박사, 부회장에 故 이형규박사와 본인, 간사장에 노익삼박사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학회의 운영은 그 당시 대한화학회의 운영체제인 간사장제도를 채택하였으며 고분자학회의 제규정, 학회운영체제 확립 등 학회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 본인이 학회장을 맡았던 1979년 당시는 학회의 사업을 학·연·산 협동체제 토착화로 확장하고 그 세를 확충해 나가는 시기였다. 특히 학회가 과학기술처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됨에 따라 간사장제도를 전무이사 체제로 전환되어 KIST의 김은영박사가 전무이사를 맡아 당초 900여만원으로 시작한 학회 살림을 2,200여만원으로 2배 이상 그 규모를 확장시켜 학회의 기반을 완전히 구축하였으며 특히 1, 2차 韓·日 공동심포지움을 서울과 일본 경도에서 번갈아 개최하여 대성황리에 끝내므로서 한국고분자학회를 외국의 학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0년이 지난 1986년에는 학회의 연간 예산이 8,000여만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강연회가 서울 엠버서더호텔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1986년 10월에 학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사무실을 구입하여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현재의 사무실인 혜천빌딩 601호로 이전하므로서 쌍림동 소재 한국플라스틱조합의 셋방살이를 마감하였다. 그 당시 전국에서 고분자 공학과를 개설하고 있던 대학은 4개 대학 뿐이었고 연구소의 수도 작았으나 추계총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는 100편을 능가하게 되어 발표장도 고분자화학, 고분자물성과 고분자 膜 및 液晶, 고분자공학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발표가 진행될 정도로 고분자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1989년 6월 IUPAC 고분자 심포지움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심포지움을 통하여 성장된 본 학회의 모습을 전세계로 알리게 됨은 물론 고분자과학 연구자 및 기술자의 교류 확대와 고분자 尖端素材에 대한 정보교환을 가지게 되어 우리나라 고분자 科學 및 技術발전에 크게 기여한 계기가 되었다. 「機能性 고분자의 분자설계」라는 주제로 열린 본 심포지움 규모를 보면 참석 인원 730명, 참가국도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26개국이었으며, 발표 논문은 R. C. Schulz교수, T. Saegusa교수, 조의환교수의 plenary lectures와 고분자 합성, 분리 기능성 고분자, 감광성 고분자, 醫療用 고분자, 전기특성 고분자 등 5개 분야에서 초청특강과 일반논문을 합하여 249편의 훌륭한 논문들이 발표되어 이들 분야에서의 연구결과들이 국제적으로 토론될 수 있는 훌륭한 장이 마련되었다. 이 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므로서 20주년을 맞는 금년에 IUPAC Macromolecular Symposium 96을 다시 한 번 훌륭하게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학회의 사업이 학술지인 「폴리머」와 기술지인 「고분자과학과 기술」의 발간,

고분자 機器分析 세미나, 고분자토론회, 고분자학계대학, 고분자신기술특강, 춘계 및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 기타 일반 세미나 등 많은 사업이 매 격월로 진행되어 회장단 이하 전 임원이 학회일에 전념을 하여도 이들 사업과 행사를 다 치러내기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러 부득이 1991년부터 모든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학회장을 首席 부회장이 그리고 전무이사는 총무이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학회의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되었다.

학회의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학문의 분야도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분야 학문에 대한 연구자들의 모임인 部門委員會의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본 학회에서는 1992년 2월에 分子電子學부문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창립모임이 있었고 이 위원회를 통하여 전도성 고분자, 액정 고분자, 유기압전 및 초전도체, 고분자유전체, 센서, LB막, MOVCD, 포토레지스트, 비선형 광학소자 등 이들에 관련된 기능성 고분자의 연구에 큰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현재는 의약품 고분자 부문위원회도 설립되어 활발한 연구모임과 상호정보교환이 이루어져 이 부문의 연구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본인 및 공동연구자들도 感光性 고분자 연구에 이어 1980년부터 계속해온 “4-관능성 에폭시 수지에 관한 연구” 즉, 전기전자재료, 복합재료 등 첨단신소재로서 매우 중요한 고성능 에폭시수지의 당면 과제인 고온 濕潤하에서의 물성 향상에 관한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많이 발표하여 이 부문 연구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학회에서는 그 동안 대학에서 고분자를 배우지 않고 고분자 산업 現場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1979년부터 고분자학계대학 강좌를 설치·운영해 오다가 각 산업체에서도 고분자 전문인력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한 고분자분야의 special topic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강좌보다는 기업체의 신입 사원 교육을 겸한 적극적인 교육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아 夏季대학 강좌를 대신하여 고분자 아카데미 강좌가 신설되었다. 제 1회 강좌가 1993년 2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 이래 기업체 및 연구소에서 고분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고분자 합성, 고분자 물성, 加工 및 고분자 新素材 등 고분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강좌를 개설하되 고분자과학과 기술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연관된 기술을 습득하는 좋은 장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교육을 각 기업체 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학·연·산의 협력체제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고분자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후원으로 1994년 6월에 처음으로 플라스틱실용화기술 포럼이 개최되었는데 이 포럼은 학술적인 세미나 형식을 떠나 산업현장의 기술을 설명하고 서로 토론하게 하므로서 서로의 技術情報교환과 새로운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었으며 강사분들도 기업체에서 현장 기술을 지니고 있는 업체의 전문가들로 강의의 담당케 함으로서 참석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올해에도 3회째의 포럼이 대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고분자학회는 타 학회에 비하여 대학에서의 학과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우수 학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高分子의 領域이 넓다는 것과 학·연·산이 협력하는 바탕 위에서 학회를 운영해 온 점과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 동참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한편 본 학회의 공식 제안으로 이루어진 韓·中고분자 심포지움이 1993년 9월에 북경의 우의빈관에서 개최되어 한국측에서 한만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이 그리고 중국측에선 R. Quian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35명이 참석하여 좋은 成果를 올렸으며, 1995년 6월에 제2차 심포지움이 서울에서 개최되므로서 중국과는 고분자를 통하여 더욱 가까운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한편 본 학회회원의 연구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하여 味元油化사장께서 고분자 학술상기금으로 1억원을 회사하여 주시어 1996년부터 연구업적이 탁월한 회원에게 상금 일천만원을 지급하는 “상업고분자상”이 설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학술상의 제정은 본회의 많은 회원들의 연구 활성화에 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년에 본 학회와 국제 純粹 및 應用화학회 (IUPAC)가 주관하는 제36차 고분자 국제심포지움(36th IUPAC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cromolecules)이 지난 8월 5일~9일까지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IUPAC MACRO SEOUL 96”의 이름으로 한·미·일을 위시한 42개국에서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매우 성황리에 개최되어 본 학회의 참모습이 다시 한 번 전세계에 과시되었다. 이 심포지움의 조직 위원장을 맡은 김은영박사를 비롯한 여러 조직위원, 김연식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協贊社, 학술위원장 진정일교수, 사무총장 김광웅박사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와 같은 거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훌륭히 치러 냄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국제 모임도 거뜰히 치러 낼 수 있다는 自信感이 생겼을 것이다. 한편 1997년 10월에 Pacific Polymer Conference (PPC)가 慶州 현 대호텔에서 그리고 1997년 5월에 Asia Polymer Conference가 경북대학교에서 개최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치른 IUPAC 심포지움의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이들 심포지움도 훌륭하게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젠 성년을 맞는 한국고분자학회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문턱에 들어선 것 같으며 학회의 사업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어 그 세가 날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면서 그간 생각나는 대로 옛날을 되돌아보았다.

끝으로 학회 創立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發展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